

“웃음과 감동 동시에 주는 영화, 나는 히트맨”

스크린 복귀 배우 정준호

오랜만에 코미디 연기
신인의 마음처럼 긴장
총선 출마설엔 손사래
“듣는 얘기대로면 이미 5선”

“히트맨”은 웃음도 주면서 꿈을 갖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
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화죠.”

영화 ‘히트맨’을 통해 오랜만에 스크린
에 복귀한 배우 정준호(51)는 영화에 대
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그는
“히트맨”은 살남에 가족들,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강조했다.

“히트맨”은 전직 국정원 암살 요원이
웹툰 작가가 돼 1급 기밀을 그려버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정준호는 현재 국
정원 대테러 정보국 국장이다 과거에는
‘악마 교관’으로 불리며 암살 요원들을
길러낸 덕구를 연기했다.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세 번, 네 번 읽
고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화 같기도
하고...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드는
시나리오의 구조 자체가 신선했죠. 덕규
는 주인공 준(권상우)을 가이드 해주는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중심을 잡으
면 캐릭터를 잘 끌어갈 것 같았어요. 감
독님 눈빛이 처절해 보이기도 했고요.
(웃음)”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에 출연한 그는
“예전보다 코미디의 호흡이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코미디는 계속 안 하면 감을 잃어버리
고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인의 마음처럼 긴장돼있죠. 다른 장르
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두사부일체’



(2001) 할 때와 지금 코미디 영화가 달라
진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연기자들의 코
미디 감각과 연출 기법에 의해 웃기는 장
면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관객이 공감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절히 영화에 넣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어디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후배들 스피드에 맞추려고 했어
요.”

준을 연기한 권상우에 대해 칭찬도 했
다.

“상우랑은 동향이라 그런지, 비슷한 기
질이 있어요. (마음) 속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이 영화는 권상우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작품이 아닌가 싶
어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짠
내’ 나는 남자 연기로 자신의 매력을 잘 보
여줬죠.”

정준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입
문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만 하면 이미 5선
은 되는 것 같아요. (웃음) 후보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지방에는 저
희처럼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
는 곳이 많죠. 제가 축제나 행사에 가서
사인해주고 사진도 찍어주면 정말 고마
워하시거든요. 전엔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로서

배우의 길을 가면서 지역의 민원을 정치
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
각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정준호식의 참
여 정치가 아닌가 싶다”고 웃었다.

배우 일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는
“사업을 통해 경험한 것을 연기에 녹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금까지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연기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처음엔 벅
차기도 했어요. 지금은 하길 잘했다고 생
각해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이를
연기에 잘 접목하게 됐거든요. 특히 이번
영화 ‘히트맨’에서요.” /연합뉴스

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촬영 중 응급실

“수면 부족으로 피로 누적”

배우 손예진(38·사진)이 27일 tvN 드
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 중 피로 누적
으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소속사 엠에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
면 손예진은 이날 드라마 촬영장에서 몸
이 잠시 안 좋아져 병원 응급실에 들러 진
료를 받고 복귀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기간 촬영하다 보
니 수면 부족 등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른 것은
아니고 대체휴일이라 병원 문 연 곳이 없
어 응급실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의 불시착’
은 동갑내기 스타 손
예진과 현빈의 로맨
스로 시청률과 화제
성 ‘쌍끌이’를 하고
있으나 촬영은 충분
한 여유 없이 촉박하
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엔 촬영 현장 안전을 위해 일주
일간 결방했고, 이번 설 연휴에도 분 방
송 대신 촬영장 뒷야기를 담은 ‘사랑의
불시착 스페셜-설 선물세트’를 편성했
다. /연합뉴스

그래미 무대 BTS ‘떨리고 신나... 내년엔 후보로’

한국 가수 첫 공연
“새 앨범, 기대보다 강력해”

“만약 내년이 그램미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면 그제 가장 큰 목표가 되겠네요.”
(방탄소년단 RM)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그램미 어워즈
레드카펫에 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게 미 현지 매체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방탄소년단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스테이플스센터에
마련된 올해 제62회 그램미 어워즈 레드
카펫에서 현지 매체들과 만나 한국 가수
처음으로 그램미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리더 RM은 공연에 앞서 CBS와 인터
뷰에서 “무척 신나네요. 떨리기도 하지만
요”라며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래퍼 릴 나스 엑스,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러스, 프로듀
서 디플로, 어린이 컨트리 가수 메이슨
램프 등과 ‘올드 타운 로드 올스타즈’

(Old Town Road All-Stars) 합동무
대를 꾸렸다. RM은 방탄소년단에 힘이
되는 전 세계 팬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만 명, 6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여
전히 신기하다”며 “사랑은 언어, 인종, 국
적,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 매체들에 내달 21일 발매
하는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 (MAP
OF THE SOUL : 7)에 대해 귀뜸하기
도 했다. 제이홉은 새 앨범에 대한 질문
에 “새 앨범을 들어보고 무대를 보신다
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길 최고로 잘했
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장담했다.

RM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
지만 무엇을 기대하시든 더 좋을 거고,
더 강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지 매체들은 K팝 스타로서 처음 그
램미 무대를 펼치는 방탄소년단의 패션
등 이모저모를 집중있게 보도했다.

시상식에 앞서 SNS에 공개된 좌석 배
치표에서는 방탄소년단 바로 앞줄에 비
윤세와 제이지 등 주요 스타들이 배치된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
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빠샤 메가S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합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다크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꿈나무 탁구 대잔치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소녀들의 농구일기(재) 40 설기획 가요무대(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포구만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kbc 신년특집다큐멘터리 도시를 깨우는 플랜 B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소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스페셜 55 스탠드 업!		
11	35 UHD 스포터 40 바다 건너 사랑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외전 외볼러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크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영상앨범 산(재)	0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오세모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사와 곰(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맹 유치원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비온드 아르헨티나> -산다민 그들처럼, 아르헨티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겨울의 산사 2부 단순하게 소박하게>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2:45 건축탐구 - 집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8일(음 1월 4일 庚午)

<p>36년생 움직일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48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60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가 된다. 72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겠다. 84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96년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15, 09</p>	<p>42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54년생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66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78년생 꼭 이수해야 낭패를 보지 않으리라. 90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02년생 모순점이 보인다면 확실히 배제하라. 행운의 숫자 : 38, 99</p>
<p>37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49년생 회자정리 하는 법이다. 61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73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85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빨리 가능성이 농후하다. 97년생 협조해 주는 이의 힘이 지대하다. 행운의 숫자 : 66, 84</p>	<p>31년생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느니라. 43년생 지형함과 집요함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55년생 성취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 67년생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두자. 79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91년생 가로 막는 장애물이 보이지는 우회하는 것이 옹이하다. 행운의 숫자 : 92, 65</p>
<p>38년생 매끄럽지 못 하다면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50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지장이 없다. 62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74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완벽하게 대처 해야겠다. 86년생 당래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 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98년생 역지사지 해본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1, 20</p>	<p>32년생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44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둘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56년생 기대 해왔던 바가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68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 반드시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 80년생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92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행운의 숫자 : 70, 35</p>
<p>39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덤비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밀리겠다. 51년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띠는 단계에 진입한다. 63년생 오랜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라. 75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다. 87년생 연속적이려면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99년생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행운의 숫자 : 78, 44</p>	<p>33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45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57년생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하자. 69년생 땅이 꺼지게 한술 쉼 일이 생기겠다. 81년생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추진하는 것이 옳다. 93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05, 76</p>
<p>40년생 불안전하지만 전혀 무리가 없었다. 52년생 우연한 기회가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64년생 인과응보의 원리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6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 붙여야 한다. 88년생 경험을 되살린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00년생 단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5, 97</p>	<p>34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하다고 볼 수 있다. 46년생 곧 입에서 튀어나올 지경이더라도 확실히 절제하라. 58년생 구조가 튼튼하고 합리적인 체제이다. 70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82년생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확실히 대처하라. 94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85, 17</p>
<p>41년생 모순점이 보이므로 농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3년생 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65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77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89년생 손을 아껴 써도 허루해가 너무 짧다. 01년생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0, 82</p>	<p>35년생 자질을 빛을 정도는 아니니 폐념치 말고 조처하라. 47년생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파격이 요청된다. 59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71년생 윤색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3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95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다면 멀리 내다 볼 수 없겠다. 행운의 숫자 : 93, 48</p>